

##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9호는 ‘인종과 문화·정치’ 특집을 마련했다. 오영인은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에서 미국에서 인종 혐오와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에 주목한다. 논문은 영화 <치욕의 대지>를 통해 쿠클릭스클랜(Ku Klux Klan: 이후 클랜)의 역사적 지속성을 확인한다. 논문은 미국에서 인종갈등과 혐오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며 지속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클랜의 활동 또한 한 번도 소멸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다. 논문에 따르면, <치욕의 대지>는 클랜의 지속성이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레퍼런스로서, 클랜의 지역성 혹은 지역문화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근거와 논리로 인종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 행태를 클랜의 긴 역사성 속에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찬행의 논문 「인종위기의 리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한 갱스터 래퍼 아이스 큐브가 1991년 10월에 발표한 곡 <Black Korea>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의 한·흑 관계가 악화되었던 과정과 아이스 큐브의 노래에 분노한 한인들의 집단적 대응에 대해 분석한다. <Black Korea>가 실려 있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 <<Death Certificate>>는 높은 수준의 랩으로 구성됐다고 평가받지만, <Black Korea>의 가사는 노골적으로 한인 이민자 상인들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는 <Black Korea>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실행한다. 이찬행은 논문에서 한·흑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의 유감 표명을 비롯한 흑인과 한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을 환기한다. 그러나 1991년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혐오 관련 사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한·흑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향후 발생하게 될 폭동 사태를 예고하는 불안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형성됐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문종현은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는 프랑스령 식민지 노예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흑인법(Code noir)이 지닌 식민지성을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논문은 흑인 노예의 사회적 지위와 의무, 그리고 노예 주인 지배자의 권리를 규정한 1685년 루이 14세 치하 프랑스에서 제정된 흑인법(Code noir)은 메트로폴리스 프랑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적용된 새로운 법률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흑인법은 프랑스에서 흑인=노예라는 등식을 최초

로 성립시킨 법률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논문은 흑인법은 흑인 노예가 왕국의 신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주체가 아닌 오로지 법률의 대상일 뿐이었음을 주장하며, 프랑스 본국에는 인정되지 않던 노예제를 법률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호모미그란스』 29호는 한국고대사와 구술사 분야의 일반논문 2편을 소개한다. 먼저, 박민경의 「6세기 전반 근강모야신(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는 탁순과 안라의 자존을 위한 중재와 한반도 각국의 동향 파악 및 韓子의 통제 및 정리를 위해 야마토 정권이 파견한 사신 근강모야신의 외교 활동이 6세기 전반 한반도 외교 지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박민경에 따르면, 『일본서기』가 전하는 모야신의 행적은 ‘임나지배’를 전제로 기술되었지만, 그 실상은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이자 탁순과 안라의 국가적 실리를 위한 활동으로 양국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이뤄졌다. 논문은 모야신(毛野臣)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파견된 목적 등은 결과적으로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모야신의 행적은 이후 안라와 백제의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박민경은 모야신의 외교 활동이 안라와 백제가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왜계관료를 기용하여 야마토 정권과의 외교를 전개해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육영수의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현재 독일 튀빙겐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Ms. Oh)의 생애를 소개한다. Ms. Oh는 고국에서 겪었던 두 딸의 어머니이자 이혼녀로서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파독간호사로 지원하여 독일로 건너갔다.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된 Ms. Oh는 같은 직장에서 대체 군복무 중이었던 독일 남성과 재혼 후 튀빙겐으로 이주했다.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입양하고 재혼으로 얻은 아들딸을 부양하기 위해 Ms. Oh는 피부 관리사와 미용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30년 동안 개인사업을 경영했다. 육영수의 논문은, 합리적인 ‘독일 시스템’ 덕분에 독일에서 보낸 반세기는 행복했었지만, 교포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독일 사회에도 동화되지 못한 외톨이 인생을 살았다는 Ms. Oh의 회고를 소개한다. 논문은 민족의 거대 서사에서 기대할 수 없는 행복을 찾는 개인의 삶에 대한 반추와 회고를 담은 구술사를 통해 사생활의 역사 또는 가족의 역사가 들려주는 삶의 경험과 의미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